

장석원(전북도립미술관장)

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의 비경을 가진 터전. 농경문화의 명성을 간직한 유적인 벽골제는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수리시설입니다. 너른 들을 품고 있는 김제의 풍요로움은 맛과 흥, 멋으로 이어져 그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

미술, 지평선을 거닐다

"미술, 지평선을 거닐다." 전에서는 故 이춘기 화백의 미니멀한 추상, 원로작가 한봉림의 실험적인 현대 도예, 원로작가 이용휘의 호반에 비친 '산그림자 1', 안시성 작가의 용기로 만든 '달항아리' 등 창의적인 작품 12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.

전북도립미술관은 소장품 중 일부를 엄선하여 도내 시·군 전시공간에 작품을 전시하는 <찾아가는 작은 미술관>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도립미술관의 미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입니다.

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에서 도립미술관의 소장품을 선보일 수 있어서 기쁩니다. 미술 속에서 풍요와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.

표지 광석 손 槌 92-04 162x130cm 종이에 수묵담채 1992 (부분)

전북도립미술관
Jeonbuk Museum of Ar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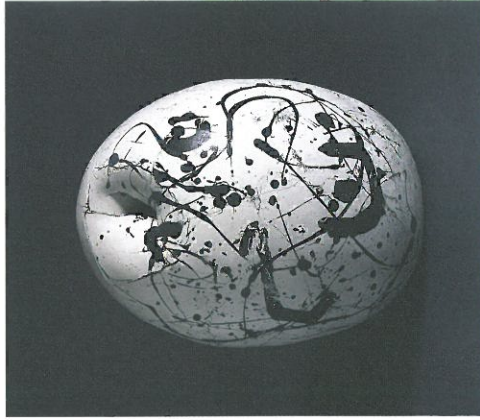
55362 전북 완주군 구미면 모악산길 111-6
Tel 063-290-6888 Fax 063-290-6889 <http://www.jma.go.kr>

벽천미술관

54425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로 442 Tel 063-540-3743 Fax 063-540-4999



한봉림 영원한 운동 88x88x67cm 점토 199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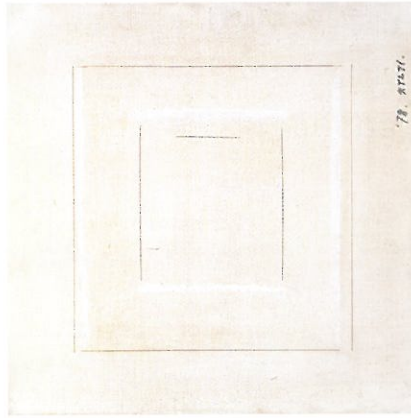
한봉림 영원한 운동 30x30x45cm 점토 2004



안시성 달항아리 45x45x40cm 용기토 장작가마 소성 2006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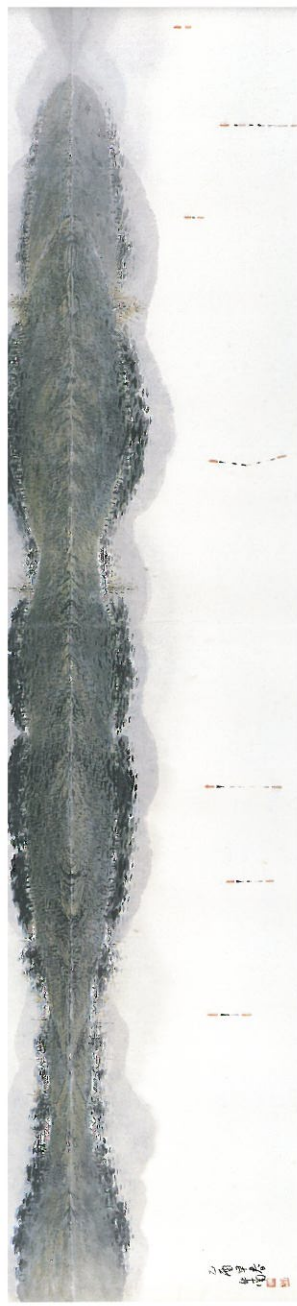
이준기 무제 33x45cm 캔버스에 유채 1960년대 초



이준기 무제 45x45cm 캔버스에 유채, 연필 1978



박소홍 Shawnee-na 8x16x117cm 호화재판 2009



이용휘 산그림자 1 57x132cm 한지에 수묵담채 2000년대



성태식 민화적 풍경 90x90cm 캔버스에 유채 1996



이현규 내 안으로부터... 50x43x103cm 드라나무 전물 2007



장명규 문명을 찾아서 - 월간청강 108x63cm 하드보드에 유채 1991



이병수 서-에서 170x740cm 캔버스에 오채 2004